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송 경 호

목 차

I .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II .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	6
1.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	6
2. 최근 군사동향	9
III . 북한의 군사정책과 당면군사전략	13
1. 북한의 군사정책	13
2. 당면군사전략	14
가. 총력전전략	15
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16
다. 기습전략	16
라. 속전속결전략	17
IV . 북한의 군사력 실태	18
1. 북한군의 조직체계	18
가. 군사지휘계통	18
나. 정치계통	21
다. 보위계통	23
2. 북한의 군사력 현황	26

가. 지상군	26
나. 공군	28
다. 해군	29
V. 남북한 군사력 비교	31
1. 지상군 전력	31
2. 공군 전력	43
3. 해군 전력	46
VI. 경찰의 대응방안	49
참고문헌	59

표 목 차

<표 2-1> 국방위원회 구성인원 변천과정	7
<표 2-2> 김정일의 공개 활동 현황	8
<표 3-1> 북한의 4대 군사노선	14
<표 4-1>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19
<표 4-2>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도	24
<표 4-3> 공군지휘체계도	29
<표 4-4> 해군지휘체계도	30
<표 5-1> 남북한 지상군 전력 비교	31
<표 5-2> 남북한 공군 전력 비교	43
<표 5-3> 남북한 해군 전력 비교	4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내세우고 우리식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한국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3000’을 남북대결정책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각종 도발적 행위들을 자행하면서 최근에는 군사적위협의 수위를 더욱 높여 왔다.

2009년 1월 17일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남북대결의 길을 선택”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할 것”²⁾임을 밝혔다.

1월 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와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관련 조항의 폐기”³⁾를 공식 천명하였

1) 북한은 2008년 12월 31일 통일부 및 국방부의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남북관계 조정기’,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 NLL 및 비무장지대 등 접전지역에서의 즉흥태세를 확립해 나갈 데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망언, 궤변, 새로운 죄악, 북침전쟁책동을 더 한층 강화하려는 범죄적 흉계라고 한국의 국가수반을 모독하고 비난하면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성명의 주요내용은 1. 매국역적 이00 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적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 2.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역적의 이른바 ‘통수이념’에 맹종하여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과 ‘응징’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형편에서 그것을 짓밟개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3. 우리의 성의 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 서해 우리 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방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조선중앙통신」, 2009. 1. 30.

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전격 교체⁴⁾하고 제4군단장에 김격식 대장을 임명하는 등 군 수뇌부 및 군단장급 인사를 단행하여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4월 5일에는 국제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서울이 분사분계선에서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⁵⁾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5월 27일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에서 “정부의 PSI 가입은 선전포고로써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⁶⁾을 주장하면서, 6월 25일을 ‘미제 반대투쟁의 날’로 규정하고 평양시 군중대회를 김일성광장에서 개최(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각시도별로 대대적인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반미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7월 26일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 경축중앙보고대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단호하게 대항할 것이며, 도발자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해 조국통일의 위협을 성취할 것”⁷⁾을 다짐하였다.

북한은 정권 수립 61돌과 관련하여 “미제를 비롯한 원수들이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미제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군사적 위력을 총동원하여 침략자들을 격퇴시키고 조국을 통일해 나갈 것이며, 모든 일꾼들과 당원 및 근로자들이 선군시대의 새로운 대고조 진군속도를 창조해 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공동사설 과업을 실천하여 올해를 강성대

4)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차수를, 총참모장에는 리영호 대장을 임명하였다.

5) 「조선중앙통신」, 2009. 4. 18.

6) 「조선중앙통신」, 2009. 5. 27.

7) 「조선중앙방송」, 2009. 7. 27.

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의 해로 빛내어 나갈 것”⁸⁾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쟁전야에서만 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노골적인 군사위협이며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차, 기계화, 포병군단을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사단/여단급부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동력과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이들 부대를 전방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고 서해 NLL 지역에서 1,000여발에 달하는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였다.

더구나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새로 창설하고 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로 증편하여 특수전부대의 전력을 강화시켰으며, 금년 들어 NLL을 20여 차례나 침범하였고 11월 10일에는 우리 측 함정에 조준사격을 가하는 등 대청해전을 자행하였다.

현재 북한은 수도권공격이 가능한 장사정/방사포 300여 문을 최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전투기의 서울 공격 시간은 발진 6분 이내로, SCUD 미사일⁹⁾은 3분 30초에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최전방 지역과 NLL 지역에 평소에 비해 2배 이상의 탄약과 전시용 유류가 공급되었으며, 북한군 고위인사가 격려방문하고 있는 것이 파악¹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요 군부대를 시찰하여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인민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수준과 무력증강 실태, 남북한 군사전력을 비교 검토, 평가하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8) 「로동신문」, 2009. 9. 9.

9) 황해북도 신계기지에서 발사할 경우.

10) 「조선일보」, 2009. 11. 11.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실태와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 검토하여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는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적 위협현황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부대배치현황, 준비정도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한 서술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주요 문헌과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관련기록물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 배치 현황과 남북한 군사력의 구체적인 비교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군사적 경험과 군사지식을 기존의 연구 자료와 접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 I.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 II. ‘북한의 군사정책과 당면군사전략’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책과 당면 군사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III.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김정일의 공개 활동, 군 수뇌부 인사, 일부 부대의 조직개편, 무력증강 실태, 군사적 위협수준을 정밀 분석하였다.
- IV. ‘북한의 군사력 실태’에서는 북한군의 조직체계와 군사력 실태로 구분하여 군사·정치·보위계통의 군사조직체계와 육·해·공군의 전력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 V.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는 남북한 군사력을 지상군·공군·해

군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VI. ‘경찰의 대응방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결과물을 요약하고 현 시점에서 경찰의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II.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

1.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

북한의 군사조직은 국방위원회 예하 인민무력부를 두고 있다.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최고 군사지도기관,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하였다.

현재 국방위원회¹¹⁾는 북한 군사조직의 최상위 군사지휘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국방관리기관’ 이라함은 “정치·경제·군사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 함을 의미한다. ‘일체의 무력’이란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포함한(정규군 119만여 명, 비정규군 770만여 명) 889만여 명의 무력을 말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최근에는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인사를 단행¹²⁾하고 일부 군부대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11) 국방위원회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룡(인민군 총정치국장), 부위원장 3명에는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이용무(인민군 차수), 오극렬(당 작전부장)을, 위원 8명에는 전병호(군수담당비서),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주상성(인민보안상), 우동측(보위부 부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부장)을 두고 있다.

12) 2009년 2월 11일에는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으로 김영춘을 인민무력부장으로, 리영호 대장을 총참모장으로 전격 교체하고, 제4군단장에는 김격식 대장을 임명하였다.

〈표 2-1〉 국방위원회 구성인원 변천과정

연도	구성인원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일 · 제1부위원장 : 조명록 · 부위원장 : 김일철, 리용무 · 위원 :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일 · 제1부위원장 : 조명록 · 부위원장 : 연형묵, 리용무 · 위원 : 김영춘, 김일철, 최룡수, 전병호, 백세봉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일 · 제1부위원장 : 조명록 · 부위원장 : 김영춘, 리용무 · 위원 : 김일철, 전병호, 백세봉, 리명수, 현철해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일 · 제1부위원장 : 조명록 · 부위원장 :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 위원 : 김일철, 백세봉, 전병호, 장성택,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

※ 출처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 도서출판 황금알, 2004) : 전현준, 『최근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북한연구소」, 『북한』 통권 제436호(서울 : 북한연구소, 2008) : 「통일부」, 『2006 북한기관 단체별 인명집』 (서울 : 통일부, 2006) : 2009년도 “북한동향”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총 기치로 내세우고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국방제일주의를 추구하여 왔다.

더구나 선군정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군의 위상¹³⁾을 강화시키고 대외적인 협상수단으로 군을 활용하는 등 군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다.

〈표 2-2〉 김정일의 공개 활동 현황

구분	공개활동 총 횟수	군/군관련 횟수(비율 : %)			경제 횟수(%)	대외 횟수(%)	기타 횟수(%)
		총	군부대 방문	군관련 행사			
2003	93	65(70%)	50(54%)	15(16%)	11(12%)	7(8%)	10(11%)
2004	101	60(59%)	54(53%)	6(6%)	10(10%)	22(22%)	9(9%)
2005	125	67(54%)	51(41%)	16(13%)	21(17%)	25(20%)	12(9%)
2006	109	72(66%)	60(55%)	12(11%)	19(18%)	7(6%)	11(10%)
2007	105	41(39%)	29(28%)	12(11%)	32(31%)	13(12%)	19(18%)
2008.7	79	29(37%)	25(32%)	4(5%)	25(32%)	3(4%)	22(28%)
계	612 (100%)	334 (54.6%)	269 (80.5%)	65 (19.5%)	118 (19.3%)	77 (12.6%)	83 (13.5%)

※ 출처 : 박수근, “북한 선군시대 당·군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7면.

13)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군 장령 편제 1,300여직 가운데 대부분을 직접 승진시키고 이들의 충성심을 유도하여 왔다.

따라서 군부의 위상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으로 급속도로 강화되었으며 권력서열과 대외정책 수행에서도 군부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그의 공개 활동에서 약 50% 이상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는 데서도 입증되었다.

군부의 위상은 공식행사를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강화, 군의 사회 경제적 역할 확대로 군지도자들이 북한체제의 실세로 등장하게 되었다.¹⁴⁾

군부 인사들의 권력서열 상승은 정권 창건 50돌 기념 열병식에서 조명록과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이 7~10위권으로 부상하였고 김일성 사망 5주기 행사에서는 김정일과 김영남에 이어 조명록이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7명 중 군부인사가 제9기에는 62명에 불과하였으나, 제10기에는 107명으로 제11기에는 118명으로 배가 증가하였으며¹⁵⁾, 군부대가 주요 국가기간사업을 비롯하여 외화벌이, 농사¹⁶⁾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¹⁷⁾되는 등 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

2. 최근 군사동향

북한은 여전히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안보에 위협¹⁸⁾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주요 군사동향을 요약하여 정리

14) 정상덕, “김정일시대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7면.

15) 송경호, “김정일시대 군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2008 책임연구보고서』 (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8), 55면.

16)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7년 4월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 데 대하여”라는 명령을 하달하여 군이 과중부터 수확까지 농사에 개입되어 있다.

17) 1997년 7월부터는 인민무력부가 주민통제에 가세하여 군 요원들이 단위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등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반사회주의적 요소’ 색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18)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09), 20면.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군단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우방국가와의 친선우호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②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천명하고,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대결태세 해소와 남북이 합의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서해 해상분계선 관련 조항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결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김정일의 영도가 있는 한 그 어떤 침략자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번은 전쟁을 해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청춘도, 생명도 초개와 같이 바칠 것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필승의 전쟁관을 주입” 시켜 왔다.

북한은 혁명군대는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적 신념과 의지, 투쟁기풍과 방식에 있어서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집단이며 목숨을 걸고 사회주의 전 초소에 있는 무장집단이다.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에도 비할 바 없는 이러한 특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혁명군대는 무장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가일층 전진시키는데 주력군으로, 추동력으로 된다¹⁹⁾고 주장하고 있다.

③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예하 군단급 기갑·기계화·포병부대를 현대전의 작전 수행에 적합한 기동력을 갖춘 사단 및 여단편제로 부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들 부대들을 전방지역으로 추진 배치하여 기동력과 화력의 집중화를 도모하였다.²⁰⁾

19) 최순욱,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방식”, 『철학연구』 2001년 3호(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15면.

20) 2006년에 비해 2008년에는 4개의 기계화군단을 2개의 기계화군단 및 4개의 기계화 사단과 여단으로, 전차군단을 전차 사단 및 수개의 여단으로, 포병군단을 포병사단 및 수개의 여단으로 개편하여 중부전선과 서부전선에 집중배치 하였다.

④ 지상과 공중, 해상의 입체적이며 동시다발적인 기습침투능력을 확보하고 휴전선 인근지역에 장사정/다련장 방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수도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 능력을 강화 하였다.²¹⁾

특수전부대의 경우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창설하였고 각 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경보병연대로 증편하여 특수전 수행능력을 한층 높였다.²²⁾

공군의 경우에는 전방지역 구읍리, 누천리, 태단 작전기지와 황주이남 지역에 위치한 5~7개의 공군기지에서 발진 후 6~8분 이내에 서울공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투기를 요격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⑤ 북한은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 현재 총 22차례나 침범하였으며 11월 10일에는 대청해전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⑥ 핵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과 화생무기 등 전략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⑦ 지휘자동화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한 해킹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전 능력을 보강하면서 전후방지역에 허위진지를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교란 장비를 배치하는 등 생존성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⑧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

21) 서울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 100여 문과 240mm 방사포 200여 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240mm 방사포는 22cm의 포신 22개에서 한번에 22발을 발사 할 수 있으며, 그 화력은 반경 100m 공간을 완전 파괴할 수 있으며, 재장전 시간도 15분 이내에 가능하다.

22) 북한은 300여 대의 AN-2기와 70여 척의 잠수함, 130여 척의 공기부양정, 260여 척의 병력수송함 등을 이용하여 한번에 2만여 명의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켜 왔다.

현재 북한은 한국에 비해 약 1.8배의 병력과 2배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의 지원 없이도 3~6개월간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³⁾

2009년 1월 현재 북한군의 총병력은 119만여 명으로 이는 총인구 2,350만여 명의 5.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인구 대비 0.9%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약 6배에 달하며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된다.

23) 탄약 110만 톤(3개월분), 식량 170만 톤(5개월분), 유류 130만 톤(4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Ⅲ. 북한의 군사정책과 당면군사전략

1. 북한의 군사정책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군사정책기조로 내세우고 대남 우위의 공세적 군사력 건설에 총력투쟁을 경주하여 왔다.

헌법 제60조에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 전군현대화 · 전민무장화 · 전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²⁴⁾고 규정하고 있다.

당 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에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²⁵⁾고 밝히고 있다.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4대 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하였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4대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하여 전사회를 병영화하고 북한의 전 지역을 요새화함으로써 대내외적 도전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²⁶⁾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정책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24)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서울 : 북한연구소, 1999), 1133면.

25) 위의 책, 1141면.

26) 「대한민국 국방부」, 『1996~1997 국방백서』(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1996), 44면.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전쟁관과 북한군사정책의 기본노선인 4대 군사노선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²⁷⁾

<표3-1> 북한의 4대군사노선

군사노선	주요내용
전인민의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군사 기술적으로 무장
전지역의 요새화	전국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전국을 철벽의 군사요새화 건설
전군의 간부화	인민군 대열을 정치사상적·군사 기술적으로 단련하여 모든 군인들이 유사시 한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
전군의 현대화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

※ 출처 : 「통일원」, 『북한개요 '91』 (서울 : 통일원, 1991), 400면.

2. 당면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을 전략구상과 전략개념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략구상은 북한군이 중국적으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의미하며, 전략개념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행동과 방법을 의미한다.

27)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164면.

북한의 전략구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적의 유생역량을 격멸하는데 있다.

둘째는 남한전지역을 동시전장화 하는 것이다.

셋째는 수도권을 조기 석권하여 전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있다.

넷째는 미군의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남한전역을 점령함으로써 미군의 주력부대에 대한 사전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북한은 총력전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추구하여 왔다.²⁸⁾

가. 총력전전략

총력전전략이란 현대전이 입체전이고 전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군사전략도 총체적인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

전쟁에서 순수 군사적인 관점을 배격하면서 정치 우선주의를 견지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군사와 경제의 결합, 외교전·심리전·선전전 등으로 군사를 보호할 것과 군사와 심리전, 선전전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구나 총력전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사상을 전파시키고 각종흑색선전, 평화공세로 대남심리전과 선전전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왔다.

특히 한국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면서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시키

28) 송경호,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통권 43집(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1996), 119~121면.

고 정치체제의 파괴에 의한 군사 지휘체계의 무력화 및 신속한 전쟁 동원체제의 파괴를 꾀하고 있다.

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이란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후방 교란, 대부대와 소부대의 결합,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즉시적 반격과 연속적 타격, 적 배후에서의 제2전선 형성, 저격수 및 유격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²⁹⁾

북한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을 한반도의 지형과 특성에 맞는 주체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이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독창적인 전략이라고 찬양선동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은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전략이기 보다는 모택동의 유격전략 및 구 소련식 군사전략, 한국전쟁의 경험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기습전략

기습전략은 북한의 군사전략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전략이다. 기습전략이란 적군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선택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투방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신속 정확하게 적의 군사 요충지를 파괴 또는 섬멸함으로써 짧은 시간과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질·량의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기습전략은 정규전의 대·소규모의 전략적 기습과 비정규전의

29) 강인덕, 『이념교육 지도전서(하)』 (서울 : 주 극동문화, 1987), 1502면.

게릴라부대의 전략적인 기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라. 속전속결전략

현대전은 총체적으로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전투의 수행방법에 있어서는 속전속결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속전속결전략은 전통적인 군사전략 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다.

속전속결전략이란 우세한 병력을 집중운영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켜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겠다는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략을 말한다.

북한은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획득한 전과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특유한 정치, 군사배합전략의 기본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일단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후 정치협상을 제의하는 수단으로의 이용을 꾀하고 있다.³⁰⁾

30) 강인덕, 앞의 책, 1503~1504면.

IV. 북한의 군사력 실태

1. 북한군의 조직체계

북한군의 최상위 군사지휘기관은 국방위원회이다. 현재 김정일은 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일체의 무력을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군사조직은 국방위원회 예하 인민무력부를 두고 있으며, 인민무력부는 군사·정치·보위계통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군사계통에는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을, 정치계통에는 총정치국장을, 보위계통에는 보위부장을 두고 있다.

인민무력부장은 군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그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민무력부의 실제적 임무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총참모장이 군사행정 결재권을 행사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총정치국장이 정치적 지도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총참모장→작전국장→각군 지휘관으로 명령지휘체계를 간소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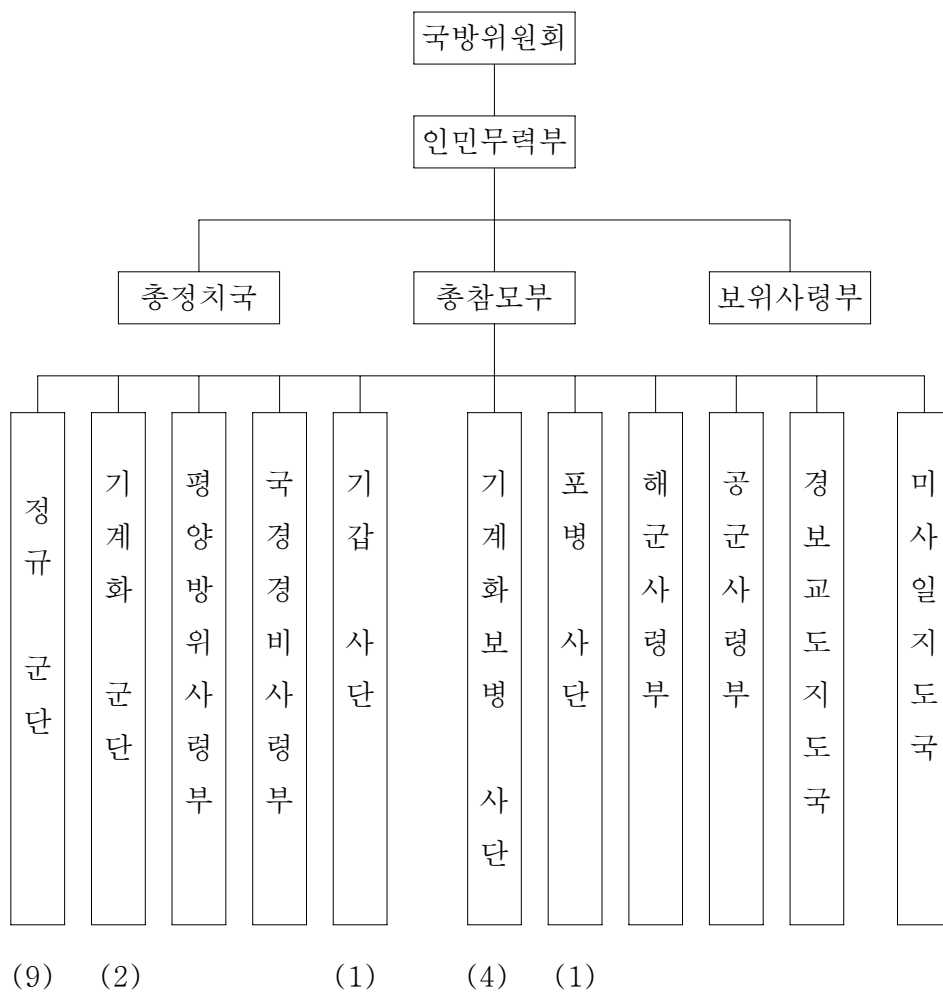
가. 군사지휘계통

군사지휘계통³¹⁾은 인민무력부(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작전국장)→

31) 송경호, “김정일시대 군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2008 책임연구 보고서』 (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8), 47~49면.

군단(군단장, 참모장, 작전참모)→사단(사단장, 참모장, 작전참모), 연대(연대장, 참모장, 작전참모)→대대(대대장, 참모장)→중대(중대장, 군사부 중대장)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4-1>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09), 24면.

인민무력부장은 통상적인 국가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며 대체로 군사행정 업무와 군사지원 등 군사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총참모장은 한국의 합참의장과 유사한 형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권은 인민무력부장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한다.

총참모장 예하 정규군단(9개), 기계화군단(2개), 전차사단(1개), 포병사단(1개), 평방사, 국경사, 기계보병사단(4개),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경보교도지도국, 미사일지도국과 26개의 참모조직³²⁾, 군사학교 및 군사종합대학, 연구소 등으로 편성되었다.

군단은 전술 및 지원 병과부대가 연합된 대규모부대(기본전술사령부)로 전술 및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군단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군단지휘부는 정치부, 참모부, 보위부, 후방부, 군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하 전투부대로는 4개 보병사단, 기계화사단, 경보병사단을 두고 있다.

군단 직속부대로는 전차여단,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포병여단, 방사포여단, 고사포연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수송대대, 화학대대, 정찰대대, 기구중대, 군단군의회(종합병원급 야전병원 1개, 후방병원 1개) 등으로 편성되었다.

사단은 사단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연대로 편성되었다. 사단지휘부는 정치부, 참모부, 후방부, 보위부, 군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보병연대, 포병연대, 경보병연대, 민경대대, 전차대대, 고사포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경비중대, 정찰중대, 화학중대, 군의회 등으로 편성

32) 국경경비, 비밀문서보관, 연안경비, 통신, 교육, 전자전, 공병, 정비, 대외사업, 재정, 외화벌이, 군사기술, 건설, 노동력 관리, 기동, 군사훈련, 경무, 핵 및 화학방호, 작전, 정찰, 무기, 인사행정, 지리, 수송 등과 같은 기능적 부서가 포함된다.

되어 있다.

연대는 연대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대대로 편성되었다. 연대 지휘부는 정치부, 참모부, 보위부, 후방부, 군사부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3개 보병대대와 포병대대(박격포), 방사포 중대, 공병중대, 경비소대, 화학소대, 정찰소대, 군의소 등으로 편성되었다.

대대는 대대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지휘부는 정치부, 참모부, 후방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중대, 비포소대, 지휘소대, 군의소로 편성되었다.

중대는 중대장 예하 지휘부와 직속부대, 소대로 편성되어 있다. 지휘부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군사부중대장, 소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소대, 지휘소대가 있다.

나. 정치계통

정치계통으로는 인민군당위원회와 정치기관으로 총정치국이 있다. 인민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직속으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이 인민군당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인민군당위원회의 기능은 각급 정치기관들의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와 당의 목적에 맞는 인사관리, 모든 군사작전 훈련계획,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 등에 관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대간부는 당 간부라는 이중적 신분 즉, 군내 당 대리자이고 당내 군 대표자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당에 우선적인 충성을 바친다. 이들의 이중적 신분은 당과 군 엘리트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을 당내 갈등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³³⁾

33) Amos Perlmutter and William M. Leogreande, "The Party in Uniform :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6, December 1982, p. 779.

인민군당위원회의 조직체계는 인민무력부(인민군당위원회)→군단(당위원회)→사단(당위원회)→연대(당위원회)→대대(초급당위원회)→중대(당세포위원회)→소대(당 소조)에 이르기까지 각 계대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단위별 정치기관 책임자가 겸임한다.

북한은 당 규약 51조에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 정치 사업을 조직하고 수행” 하며, 제52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 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령을 세우는데서 경계할 것은 군령을 세운다고 하여 군사지휘관들이 당 조직과 군내정치기관을 무시하고 전횡을 부리거나 독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³⁴⁾고 지시하면서 “정치위원은 부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부대 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 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정치기관으로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총정치국장)→군단정치부(정치위원)→사단정치부(정치위원)→연대정치부(정치위원)→대대정치부(정치지도원)→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이들 정치군관들은 중앙당에서 직접 파견하여 당 정책 실현을 위한 정치사업과 김부자 유일사상체계 확립, 제반 군사업무의 감시, 감독, 정치 및 당 사업 조정 감독, 명령 및 계획에 대한 비준, 군부대의 파벌 형성 반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4) 1994년 4월 9일 장성우 제3군단장에게 지시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군사지휘관이 부대를 군사적으로 책임진다면 정치위원은 부대를 정치적으로, 당적으로 책임지고,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부대 안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³⁵⁾ 할 것을 강조하면서 당 정치 사업을 군사 업무보다 선행시킴으로써 물질보다 정신적 전투력을 중요시하여 왔다.

현재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은 조명록 차수이다. 총정치국장 예하 부국장(조직, 선전부국장 : 대장)과 조직계획부, 당조직부, 선전 및 교육부, 김청동지도부, 적공부, 특별정치부, 공보부, 통제부, 감찰부, 간부부, 인민군출판사, 인민군신문사, 2.8영화촬영소, 인민군협주단, 2.8체육단, 김일성정치대학³⁶⁾ 등을 두고 있다.

다. 보위계통

보위계통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사령관) 예하 →군단 보위부(보위부장)→사단 보위부(보위부장)→연대 보위부(보위부장)→대대 보위지도원→중대 담당보위지도원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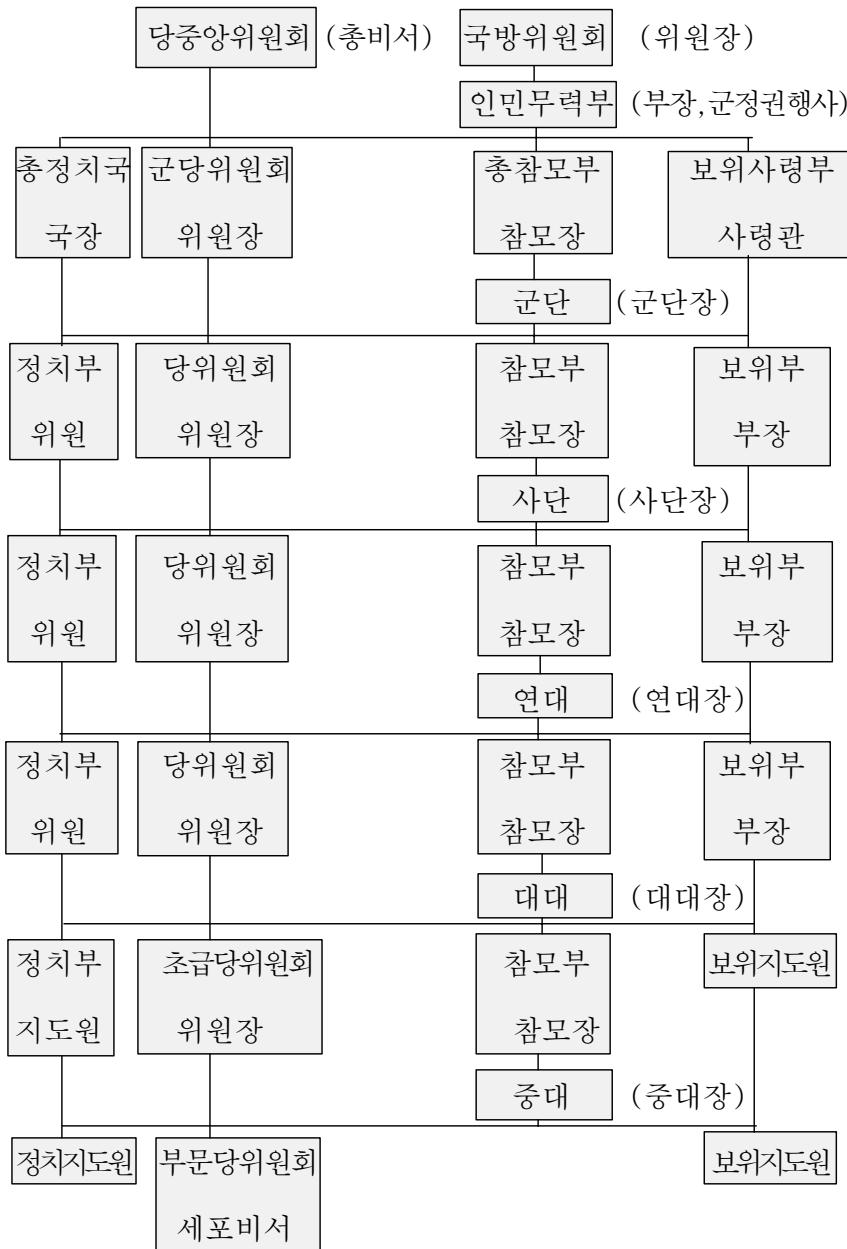
보위사령관은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등과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기능상으로는 한국의 기무사령관에 해당한다.

35) 김정일,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72.10.17) 『김정일선집』 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63~464면.

36) 조직계획부는 총정치국 사업전반에 관한 조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 지도하는 기획기능 업무를 담당한다. 당조직부는 당 조직 확대, 지도, 점검 등 일체의 조직업무를 주관하며, 김청동지도부는 김청동사업을 조직, 지도, 감독한다.

간부부는 정치군관에 관한 인사업무를, 선전 및 교육부는 정치사상교육 및 선전사업 전반을 조직 지도한다. 통제부는 정치 사업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및 보관,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인민군출판사는 조선인민군신문과 각종 단행본의 발간 배포 등 출판물 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8영화촬영소는 김부자 우상화 및 군 관련 영화의 제작 배포 업무를, 인민군협주단은 위문공연 등 연예활동 업무를, 감찰부는 군내 당 사업 전반에 관한 검열업무를, 적공부는 대남심리전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수행하고 있다.

<표 4-2>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도



주요임무는 군 내부의 간첩 및 반당·반혁명분자를 색출하는 수사, 심문, 군 관련 범죄수사, 군 지휘관들의 동향감시 및 주민등록 업무관장, 국경지역에 대한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상황 점검, 외국에 파견되는 인민무력부 산하 외화일꾼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위사령부는 사령관(원응희 대장)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지구보위사령부로 편성되었다.

지휘부는 1부 조직계획부, 2부 수사부, 3부 예심부, 4부 감찰부, 5부 사건종합부, 6부 미행부, 7부 기술부, 8·9·10부 특수검열부, 11부 국경검열부, 간부부, 정치부 등 총 14개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직속기관으로는 행사부, 검열대를 두고 있으며 직속부대로는 3개 국경경비여단으로 편성되었다.

지구보위사령부는 군단보위부 및 시도보위부를 두고 있다. 최근 보위사령부는 국경검문과 열차경비를 담당하는 등 군내의 정치·지도계통은 물론 일반 공안조직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³⁷⁾

특히 보위군관들은 10명당 1명 정도의 비밀정보원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 반대 및 김일성, 김정일 권위훼손, 당 정책 수행정도, 북한체제 비방중상, 한국에 대한 찬양 선전, 국가물자 및 군사물자 절취, 군사규율 위반행위, 주요 군사지휘관의 인맥 및 활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다.

3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102면.

2. 북한의 군사력 현황

북한의 총병력은 상비전력 119만여 명과 예비전력 770만여 명을 포함하여 889만여 명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³⁸⁾

119만여 명의 상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총인구 2,350만여 명의 5.1%를 차지하는 현역군인을 보유하고 있다.³⁹⁾

가. 지상군

지상군은 병력은 102만여 명으로 15개의 군단 또는 군단급(정규군단 9개,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정보교도지도국)부대로 편성⁴⁰⁾되어 있으며,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약 70%를 배치하였다.

지상군부대의 배치는 전방지역에 4개 군단(동부전선 제1군단, 중부전선 제5군단, 서부전선 2군단, 해주지역 제4군단)을, 중부 및 평양지역에 6개 군단(제3군단, 제7군단, 제9군단, 제8군단, 2개 기계화군단)을, 후방지역에 5개 군단(제6군단, 제10군단 등)을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 및 여단 단위의 부대는 총 155개(사단 86개, 여단 69개)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장비는 전차 3,900여 대, 장갑차 2,100여 대, 야포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5,1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100여 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38) 예비전력은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위대 570만여 명, 붉은청년군위대 100만여 명, 준군사부대 40만여 명(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군수동원지도국,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260면.

39) 인구 비율 상비전력은 이스라엘이 세계 1위이며(인구 500만여 명에 60만여 명으로 약 12%의 동원태세를 보유) 북한은 2위에 해당된다.

40)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24~25면.

특수전부대의 총 병력은 18만여 명으로 군단급부대 특수8군단 이하 17개 여단(2개 해상저격 여단 및 2개 공군저격여단 포함)과 인민무려부 경찰국 이하 4개 저격여단과 5개 경찰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단(4개), 12개 경보병연대, 23개 경보병 대대로 편성되었다.

북한군은 전후방의 모든 부대에 갱도진지가 구축되어 있다.⁴¹⁾ 현재 요새화된 갱도진지는 전방지역의 경우 대대장 이상 야전지휘소를 포함하여 500여 개소에 달한다.

10,500여 개소의 중대 단위 이상의 부대의 진지가 갱도화 되어 있으며, 13,000여개소의 포병진지, 13,000개소의 대피소(후방지역은 단위별 1~3개, 2급 이상 공장, 기업소 포함) 등 약 36,000여 개소의 지하갱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비롯하여 비대칭무기들인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하였다.

핵무기의 경우 최소 5~7기에서 최대 15~20여 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사일의 경우 연간 300여 기(SCUD-B/C 미사일은 월 8~12기, 노동1호 월 8기, 대포동1호 월 4기 등)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1,300여 기의 미사일이 실전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무기의 경우 연간 5,000여 톤, 전시에는 12,000여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된다.

생물학무기의 경우 1970년대 세균연구소(평안남도 성천군 소재)에서 화생무기 성능을 실험하였고 201연구소와 501연구소, 미생물연구소를 비롯한 10여 개소에서 인체 및 동물에서 추출한 세균을 배양하여 무기화하였다.

41) 통상 중대단위 이상은 갱도막사, 반토굴 형식의 막사, 야외막사를 갖고 있다. 이는 평상시 야외 막사에서 생활하다가 비상시 1차로 반토굴 막사에 대피하였다고 공습 후 완전갱도 막사로 진입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현재 생물학무기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진 탄저균을 연간 1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⁴²⁾

나. 공군

공군의 총 병력은 11만여 명으로 구성⁴³⁾되어 있다. 사령관 예하 지휘부, 지속부대, 4개의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2개의 공군저격여단⁴⁴⁾, 지상방공부대⁴⁵⁾로 편성되었다.

1,690여 대의 항공기⁴⁶⁾를 20여개소의 작전기지⁴⁷⁾에 배치하고 이 중 40% 이상을 평양-원산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하여 기습공격 능력을 강화하였다.

전방지역 구읍리, 누천리, 태탄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전투기들은 발진 6분 이내에 수도권 공격이 가능하며, 재급유 없이도 남한 전역과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레이더 탐지부대의 경우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0여개의 레이더 기지와 자동화된 방공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사일 부대의 경우 SA-5 미사일 등을 동·서부 지역에 집중배치하였고, SA-2/3 미사일 등은 전방지역을 비롯하여 동·서해안지역 및 평양권 지역에는 집중 배치하였다.

42) 「중앙일보」, 1999. 5. 13.

43)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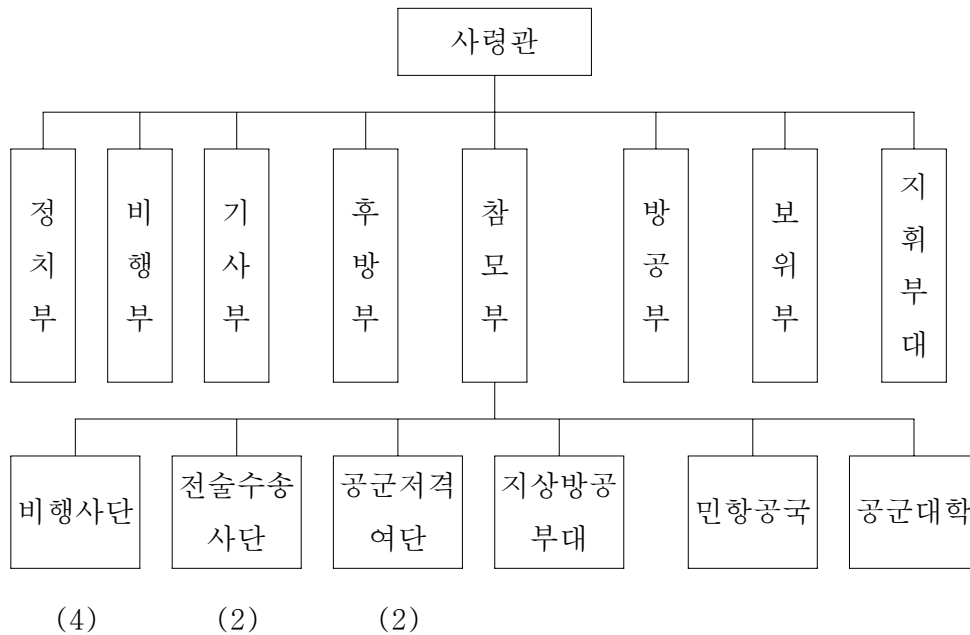
44) 공군저격여단은 여단 지휘부, 지원부대, 10개 정찰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투단위는 10명 전원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45) 미사일 4개 여단을 비롯하여 40여개 방공포 대대가 45개소에 분산배치 되어 있다.

46) 주요전투기는 전투입무기 84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310여 대, 훈련기 18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47) 평양, 중화, 황주, 의주, 원산, 개천, 함흥, 안주, 북창, 순안, 청진, 현리, 구읍리, 누천리, 태탄 등 20여 개소의 작전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50여 개소의 예비진지(지하 활주로 포함)가 구축되어 있다.

<표 4-3> 공군지휘체계도⁴⁸⁾



다 해군

해군은 총병력 6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령관 예하 지휘부, 직속부대, 2개 함대사령부(동해함대사령부 7개 전대, 서해함대사령부 6개 전대), 2개 해상저격여단⁴⁹⁾으로 편성되었다.

주요함정 810여 척⁵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60%를 전진배치 하였다.

48) 『2008 국방백서』 : 김권철, 『한반도내 군사력』(서울 : 도서출판 천산산맥, 1989), 28면 등을 참고하여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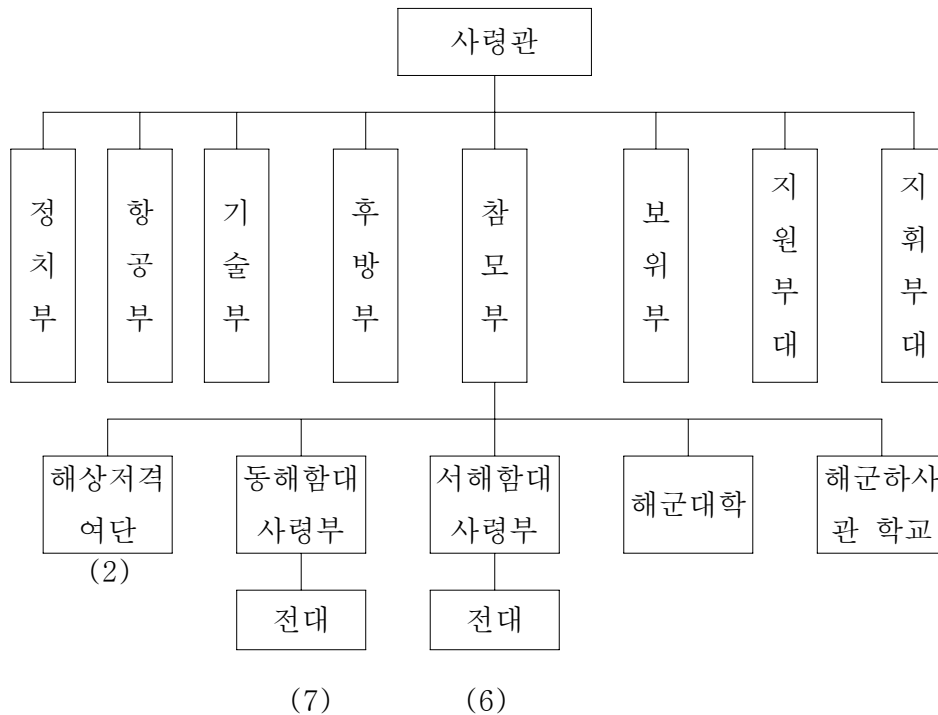
49) 해상저격여단은 상륙작전 및 특수전부대의 침투를 위해 130여 척의 공기부양정과 90여 척의 고속상륙정, 70여 척의 잠수함을 이용하여 3,900여명~5,400여 명의 특수전부대원을 동시 침투시킬 수 있는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다.

50) 주요 함정은 수상전투함정 420여 척, 상륙함정 26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기뢰전함정 30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면서 지대함 및 함대함 유도탄과 신형 어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0여 개소의 해안포대와 10여 개소의 함정대피소, 신포 마양도에 는 잠수함 수중터널을 갖추고 있다.

〈표 4-4〉 해군지휘체계도⁵¹⁾



여 척, 지원함정 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51)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 김권철, 『한반도내 군사력』, 27면 등을 참고하여 구성함.

V. 남북한 군사력 비교

1. 지상군 전력

남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있으며 남북한 경제력이 38배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대량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1〉 남북한 지상군 전력 비교⁵²⁾

구분		대한민국	북한	
주요전력	병력	52만 2천여 명	102만여 명	
	부대	군단(급)	10(특전사 포함)	15
		사단	46	86
		기동여단	15	69 (교도 10여 개 미포함)
	장비	전차	2,300여 대	3,900여 대
		장갑차	2,400여 대	2,100여 대
		야포	5,200여 문	8,500여 문
		다련장/ 방사포	200여 문	5,100여 문
		지대지 유도무기	30여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52)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260면.

특히 한국의 군사력은 양보다는 질적 강화를, 병력보다는 무기의 현대화를, 전력구조에 있어서도 지상군 보다는 공군·해군의 전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지상군·공군·해군으로 나누어 비교 검토⁵³⁾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상군의 전력은 병력과 장비의 양·질적 측면에서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병력 규모 및 지상군의 조직편제에서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① 지상군 총 병력은 북한이 102만 여명인데 비해 한국은 52만 2천명으로 약 두 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지상군 부대의 조직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군단이 10개⁵⁴⁾인데 비해 북한은 15개로 5개의 군단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의 경우 한국은 46개인데 비해 북한은 86개로 40개 사단병력을 더 갖추고 있으며, 기동여단의 경우 한국은 15개인데 비해 북한은 69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③ 병력규모가 동급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급 부대의 편제에 있어서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적은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의 기동력에 있어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53)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09) :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서울 : 예진출판, 1990) : 김권철, 『한반도내 군사력』(서울 : 천산산맥, 1989)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서울 : 북한연구소, 1983) : 이혁섭, 『한반도 평화방위론』(서울 : 도서출판 붕명, 2006) 등의 자료를 참고함.

둘째, 지상군의 장비와 기동력에서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는 AK소총, SKS반자동보총, 경기관총, 박격포, 대전차포, 곡사포, 평곡사포, 평사포, 고사포, 방사포, 자주포, 전차, 장갑차, 수륙양용차, 수륙양용전차, 부교, FROG-5/7 미사일, SCUD 미사일, 노동호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핵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총과 기관총, 130mm 평사포, 152mm 평곡사포,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SCUD 미사일 등은 그 성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지상군의 주요장비를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① 개인 화기(소총, 기관총, 투척기, 방독면 등)의 경우 남북한 모두(소총 및 기관총 등) 그 성능이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개인화기 성능의 평가에 있어서 명중률과 파괴력, 총신장의 강도를 중점에 두고 평가한다. 소총과 기관총의 총신 강도는 남북한 모두 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⁵⁵⁾

명중률에서 북한 소총은 조준이 쉽고 최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원거리에서의 집중사격이 용이한 반면 한국의 소총은 파괴력에 있어서 북한 소총의 약 2배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② 전차, 기계화, 차량화 부대⁵⁶⁾에 있어서 한국은 방어적 성격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나, 북한은 공세적 전략에 입각하여 기동력과 화력집

55) 보병의 경우 북한군은 연간 30여 발 실탄사격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국군은 300여 발의 실탄사격을 진행한다. 북한군이 적은 실탄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사격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일 30분간의 조준연습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6) 위의 책, 『2007 북한이해』, 121~123면 : 『2008 국방백서』, 참고.

중에 중점을 두고 기습적인 공격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전차부대의 전력은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갑차의 경우 남 북한이 대등한 상태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차의 경우 한국은 2,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3,900여 대로 1.7배(1,600여대)의 양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력면에서 남과 북은 최신형 전차를 한국이 88전차 1,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T-62 및 경전차 800여 대를 비롯하여 T-62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를 자체생산 하여 전방 및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한국은 M-47 400여 대, M-48 9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T-54/55/59형 2,800여 대, 구형인 T-34전차 25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차는 노후화 되어 있어 신형전차에 비해 기동력과 속도, 사거리, 화력면에서 모두 떨어지고 있으며 주력전차의 성능은 한국이 다소 앞서고 있다.

북한은 연간 150여 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 T-80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차전력의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대전차전에서 공격형 헬기 130여 대를 비롯하여 TOW 미사일을 대량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이 휴전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현재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전차부대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예하 전차사단(중전 전차군단을 사단 및 여단으로 분산)과 수개의 전차여단의 편제를 갖추고 있으며, 전방군단에는 전차여단을, 사단에는 전차대대로 편성되었다.

이는 한국이 전차부대를 사단의 경우 1개 중대 1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은 사단에 전차 대대를, 한국이 군단의 경우 전차 대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전차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방 사단, 군단의 전차화력은 약 3배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③ 장갑차 부대의 전력은 남북한이 대등한 상태에서 한국이 양·질적 측면에서 다소 우위를 차지한다.

한국은 2,4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2,100여 대로 한국이 300여 대의 장갑차를 더 보유하고 있다.

주요 장갑차는 한국이 KIFV, M-113, M-577형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M-1973형⁵⁷⁾이 주종을 형성하고 있으며, BTR 40/50/60/152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BTR-50과 BTR-152형의 인력 수송은 19~20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전차 수준의 성능을 갖춘 BMP계열의 장갑차를 실전배치하는 한편 대부분의 장갑차량이 급속도하 능력을 갖추었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예하 2개의 기계화 군단(과거 4개 군단) 및 수개의 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방 군단에는 1개의 기계화사단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동력을 향상시켜 왔다.

④ 포병부대의 전력은 북한이 약 2.5배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야포의 경우 한국은 5,200여 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8,500여 문을 보유(76.2mm, 100mm, 122mm, 130mm, 152mm, 170mm 등)하고 있다.

방사포/다련장의 경우 한국은 2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5,100여 문(107mm, 122mm, 132mm, 240mm)을, 고사포는 (23mm, 37mm, 85mm, 100mm 등) 12,5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군 부대의 사단·군단의 포병전력을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57) M-1973형은 구소련계 BMP-1 및 중국계 YW-531 장갑차를 모방하여 1973년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병력수송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사단의 경우 8개의 포병대대 및 3개의 포병중대 약 150여 문의 포를 보유⁵⁸⁾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사단 포병단에 4개 포병대대 60문(105mm 곡사포 3개 대대 54문, 155mm 곡사포 1개 대대 12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단의 포병화력은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군단 방사포 여단의 방사포 1개 대대를 각 사단에 지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병의 화력은 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군단의 경우 북한의 포병부대는 군단 예하 52개 포병대대(군단 예하 포병 16개 대대), 5개 사단 36개 대대(4개 보병사단 32개 대대, 1개의 기계화보병사단 4개 대대)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17개의 포병대대(군단포병단 5개 포병대대, 3개 사단 12개 포병 대대)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단의 포병전력은 약 3배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포병은 약 50%를 자주화하여 포병전력을 강화시켜 왔다. 최근에는 포병의 주 전력으로 장사정 야포와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170mm 자주포와 130mm 평사포, 152mm 평곡사포, 240mm 방사포를 최전방 지역에 전진배치 하였다.

포병부대의 편제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예하 포병사단(과거 포병군단) 및 수개의 포병여단을 갖추고 있으며, 군단에는 포병여단, 방사포여단, 고사포 연대를, 사단에는 포병연대, 고사포 대대를, 연대에는 박격포대대, 방사포 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지상군부대의 보·전·포 연합부대 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높여왔다. 예를 들어 보병 연대급 부대에는 연포군을, 사단에는

58) 사단 포병연대 4개 대대 60문(122mm 곡사포 2개 대대 36문, 130mm 평사포 1개 대대 12문, 152mm 평곡사포 1개 대대 12문), 박격포 3개 대대 54문(보병연대 박격포 대대 120mm 박격포 18문), 기타, 고사포 및 방사포 30여 문.

사포군을, 군단에는 군포군을 편성하여 각 부대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포병화력의 집중화와 기동화를 실현하였다.

연포군의 경우 보병연대의 전투 작전에 필요한 포병 화력을 지원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연포군의 구성은 보병연대 120mm 박격포 1개 대대와 방사포 1개 중대, 사단 포병이 지원하는 포병연대의 1개 포병 대대(122mm 곡사포 또는 130mm 평사포 및 152mm 평곡사포)로 편성되어 있다.

사포군은 사단 예하 1개 포병 연대, 고사포 1개 대대, 3개의 박격포 대대, 3개의 방사포 중대를 중심으로 군단의 포병부대의 방사포 1개 대대, 평사포 또는 평곡사포 1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사단의 전차 대대 및 군단 전차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군포군은 군단예하 5개의 포병연대(각 사단의 1개 포병연대)와 5개의 고사포 대대, 방사포 여단, 포병여단, 고사포 연대를 중심으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서 지원하는 방사포, 야포, 미사일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더구나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170mm 자주포의 경우 최대사거리는 54Km이며 분당 2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240mm 방사포의 경우 최대사거리 60Km로 35초에 22발을 발사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보유하고 있는 야포 및 다련장/방사포 13,600여 문 가운데 전방지역의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 지역에는 약 520여 개 포병 대대 8,000여 문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포병부대는 장사정포 170mm 자주포 6여개 대대와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 130mm 평사포 10여개 대대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북한은 14.5mm 고사기관총으로부터 100mm의 고사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경의 고사포와 대공미사일 등 방공포부대를 갖추고 있으며 각 포병대대 단위로 1개 중대를 직일포(전투근무) 근무를 수행하면

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전차, 장갑차, 차량화, 포병부대를 휴전선 기준 160Km 이남지역에 전진배치 하여 공격형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군이 휴전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휴전선 155마일 전 계선에 구축되어 있는 대전차방위벽이 지구 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최고의 대전차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전차 장애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휴전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야포 등의 화력으로는 전선돌파가 불가능한 것이며 비행기의 폭격으로도 대대적인 공격을 시도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구나 북한의 기계화 부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TOW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부대는 휴전선을 돌파하고자 하는 북한의 기계화 부대를 초전격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전차 장애물은 서부전선 및 중부전선에서 서울로 향한 계선에 5~7개 계선으로 구축되어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투우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TOW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의 화력으로도 북한의 전차, 장갑차, 포병부대의 공격을 능히 막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수도 서울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서부 및 중부전선에 2,0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이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은 북한의 기계화 부대를 1개 계선에서 보통 5분정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군이 부대를 정비하고 반격을 개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특수전부대의 전력이 병력 및 조직규모에서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전부대의 경우 북한은 4개 경비병 사단, 25개 여단(11개 경비병여단, 2개 해상저격여단, 5개 항공육전여단, 2개 공격저격여단, 5개 저격여단), 12개 경비병연대, 23개 경비병대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한국은 2개 사단, 10개 여단, 8개 연대, 수개의 대대로 편성되어 약 2배 이상의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⁵⁹⁾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예하 경비교도지도국과 경찰국, 각 군단 및 사단에 편성되어 있다.

총체적인 지휘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서 하고 있으며, 전문 지휘는 경찰국이, 실무 지휘는 각 군중 및 군단, 사단, 여단이 담당 수행한다.

최근 전방군단에는 경비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비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여 특수전부대의 총병력은 18만 여명에 달한다.⁶⁰⁾

이들 특수전부대는 군단급 부대인 경비교도지도국(제570군부대) 예하 17개 여단 편제를 갖추고 있다.

경비교도지도국에는 7개의 경비병여단과 5개의 항공육전여단, 2개의 해상저격여단, 2개의 공격저격여단, 1개의 저격여단으로 편성되었다.

인민무력부 경찰국(제586군부대) 예하 4개의 저격여단과 5개의 경찰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방군단에는 1개의 경비병사단과 경비병여단, 저격여단, 경찰대대를, 전방사단에는 경비병연대와 경찰 중대를, 후방사단에는 경비병 대대를

59) 송경호, “북한 특수부대의 조직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통권 제70집(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2), 99~101면.

60)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25면.

두고 있다.

특히 중동부전선의 제5군단 예하에는 강원도 평강군 북계리 소재에 제 75경보병여단과 제63저격여단을, 서부전선 제2군단 예하에는 황해북도 평산군 와현리 짜리재 소재에 제32경보병여단 및 제61저격여단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경보병사단 및 여단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작전국의 전략 전술적 군사작전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측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기습파괴, 후방교란, 주요인사 살해, 주력부대의 공격 진로를 개척하여 작전승리를 보장하고 제2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 창설된 경보병사단의 구성은 지휘부 및 지휘부대, 3개 연대로 약 8,000여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보병여단은 지휘부 및 지휘부대, 7개 대대 약 5,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보병연대는 2,000여 명으로 지휘부 및 지휘부대, 3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보병대대는 600여 명으로 지휘부, 지휘부대, 6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저격부대는 2개 여단 총병력 9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항만 타격 및 봉쇄, 남해안 연안의 상륙작전, 주요 목표에 대한 습격 및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포(3군단지역), 원산(7군단지역), 다사리(8군단지역)에 집중배치 되어 있다.

저격여단은 4,50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휘부와 지휘부대(지원중대, 통신소대, 공병소대 등), 5개의 상륙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장비로는 경보병 여단의 장비와 유사하며 상륙용 전차나 APC를 배속 받을 수 있어 강습에 의한 상륙을 시도할 수 있다.

수송능력은 남포급 80여 척으로 1,600~2,400여 명, 한태급 12척으로 1,920~2,400여 명, 한천급 10척으로 400~600여 명으로써 한번에 3,920~5,400여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Whisky급 잠수함 16척, Romeo급 잠수함 4척, 대양선박 61척으로 범세계적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육전여단은 한국의 모든 한·미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민항, 철도, 고속도로, 군수산업, 통신, 레이더기지 등을 비롯한 군사적 요충지 등을 습격 파괴 또는 확보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상륙전을 지원하고 적의 전략적 후방에 새로운 전선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유격전을 전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대이다.

5개의 육전여단에 총 병력 3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장비로는 저격여단 장비와 유사하며 AN-2기와 MI-4헬기 등 400여 대의 수송기 및 헬기를 이용하여 강습작전을 전개하여 한번에 5~6천명의 항공육전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격여단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와 경보교도지도국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주요 전략 및 전술 목표를 공격 파괴하고 범세계적인 임무(테러 및 혁명집단 군사훈련)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5개의 여단에 총 병력은 21,00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대의 배치는 경보교도지도국에 1개 여단, 전방지역에 4개 여단이 배치되어 있다.

여단의 총 병력은 4,200여 명으로 지휘부 및 지원부대, 10개 정찰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투기본 단위는 10명(전원 장교, 특수작전 시에는 3~5명의 정찰조를 편성)으로 편성되었다.

주요장비는 타 부대에 비해 첨단 통신 및 정찰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정찰 요원들이 한국군 군복과 민간인 제복을 갖추고 군용 및 민간 수송수단 및 노획장비를 이용한 작전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세계 각국이 공정부대, 저격병, 경비병, 정찰병 등의 이름으로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처럼 전군의 15%에 해당하는 18만여 명(6개 보병 군단급)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비대칭전력에서 북한이 당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핵 무기의 보유국이며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핵무기를 최소 5~7개, 최대 15~20기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300여 기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⁶¹⁾

북한의 화학부대는 총참모부 예하 2개의 화학연대를 비롯하여 군단 화학대대, 사단 화학중대, 연대 화학소대로 편성되어 있어, 한국의 화학부대에 비해 2개의 화학연대와 각 연대급 단위에 1개 화학소대 병력을 더 갖추고 있다.

화학무기 생산량은 연간 평시 5,000톤, 전시 12,000톤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사린(Sarin), VX-3, 염화시안, 청산제, 겨자가스, 포스겐 등 신경성·수포성·혈액성·최루성 화학무기를 생산⁶²⁾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마람물자사령부(평양시 용성구역 마산동)와 지하리 화학사령부(강원도 안변군 지하리)의 전력저장고에 저장하였다가 각 전방군단(1·2·4·5군단) 화학무기 저장고인 황촌(평양시, 핵화학방위국 직속) 산음리(황해북도), 산삼동(황해북도, 평방사 소속), 사리원(황해북도, 8.15기계화군단 소속), 왕재봉(강원도, 제5군단 소속)에 집중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북한은 박격포, 야포, 방사포, 미사일, 항공기 등으로 전후방 지역에

61) 송경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2006 책임연구과제』(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6), 참고.

62) 화학무기 및 주요 방호장비들은 함흥, 흥남, 순천, 안주, 신의주, 청진, 아오지, 만포에서 생산되고 있다.

화학무기의 동시 투발이 가능하며, 생물학무기 중에서도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 존재로 대두되고 있는 탄저균을 연간 1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⁶³⁾ 있다.

주요 생산 시설은 평안북도 정주 25호 공장을 비롯하여 강원도 문천지역의 한천공장, 서해상 무인도 등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2. 공군 전력

공군의 전투력은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의 숙련도(전투수행 능력), 비행기지 및 방공능력에 기초하여 평가 할 수 있다.

〈표5-2〉 남북한 공군 전력 비교⁶⁴⁾

구분		대한민국	북한
주요전력	병력	6만 5천여 명	11만여 명
	전투임무기	490여 대	84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 (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	40여 대	330여 대 (AN-2기 포함)
	훈련기	170여 대	180여 대
	헬기	680여 대 (육·해·공군 통합)	310여 대

63) 「중앙일보」, 1999. 5. 13.

64)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260면.

공군의 전력은 총병력과 전투기의 양적측면에서 북한이 수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전투기의 성능 및 조종사의 숙련도는 한국이 당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총병력은 한국이 65,000여 명인데 비해 북한은 110,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경우 북한이 1,69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4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 4개 비행사단과 2개 전술수송여단, 2개의 공군저격여단, 지상방공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약 40%의 전투기를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전진배치 하여 기습적인 공격태세를 유지하여 왔다. 남북한 모두 최신형 전투기인 F-16과 M-29기를 자체로 조립생산하고 있다.

장차 공중전의 양상은 한반도의 제한된 영역에서 전투행동반경을 감안하여 볼 때 레이더와 센스의 능력, 항공관제 및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무기체계의 정밀도 및 타격력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여 누가 먼저 발견하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느냐에 따라 공중전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전투기의 성능은 한국의 전투기가 북한 전투기에 비해 우수하고 동종 전투기의 보유에 있어서도 당연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전투임무기의 경우 한국은 49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8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신형 전투기의 경우 한국은 KF/F-16기를 150여 대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M-29/23, SU-25기를 90여 대로 한국이 60여 대를 더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투기는 F-16의 경우 화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M-29는 전투행동반경과 속도에 있어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군 주력기는 한국의 F-4, F-5이며, 북한은 M-19, M-21이다. 한국은

F-4전투기를 130여 대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M-21전투기를 130여 대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F-5전투기를 180여 대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M-19/17, SU-7전투기 28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전투기의 성능은 한국의 F-4, F-5가 속도 및 전투행동반경, 화력 면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감시통제기는 한국이 50여 대, 북한은 3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기동기는 한국이 40여 대, 북한이 AN-2기를 포함하여 3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훈련기는 한국이 170여 대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180여 대로 비슷한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는 한국이 68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31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② 조종사의 전투수행능력에 있어서 한국이 당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조종사의 이착륙 훈련, 요격 및 폭격훈련 비율이 북한의 조종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전투상황에 대응한 전투수행능력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비행기지 및 항공관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방공능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공군은 각기 20여 곳의 작전 기지와 비상활주로를 포함하여 60~70여 곳의 비행기지를 갖추고 있다.

공군의 주요 전투기들은 남북한 모두 격납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주요 전투기를 지하 격납고에 보관하고 있다.

북한의 레이더 탐지부대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남·북한 지역을

비롯하여 중국 일부지역까지 탐지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방공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 부대는 장거리 고고도 SA-5 미사일 등은 동·서부에 집중배치 하였고, SA-2/3 미사일은 비무장지대(DMZ) 및 동·서해안 및 평양권 방어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방공포부대는 미사일 4개 여단을 중심으로 40여개 대대가 45개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해군 전력

해군의 전력은 북한이 총병력 6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6만 8천여 명으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5-3〉 남북한 해군전력 비교⁶⁵⁾

구분		대한민국	북한	
주요전력	병력	6만 8천여 명	6만여 명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전투함정의 경우 한국이 16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740

65) 위의 책, 『2008 국방백서』, 260면.

여 척으로 북한이 수적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병력 및 함정의 성능, 전투력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함대사령부 13개 전대 및 2개 해상저력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약 60%가 전진배치 되었다.

북한 해군은 지리적 여건의 취약성(동·서해안이 분리)으로 해군의 전략적 집중화를 달성할 수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투함정 대부분이 소형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연안방어 중심의 작전임무 수행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해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전투함정은 북한이 나진급 프리깃드(1,500톤급) 2척을 비롯하여 연안용 미사일정 등 소형함정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울산급 프리깃트(2,180톤) 7척, 포항급 프리깃드(1,220톤) 22척, 동해급 콜벳트(950톤) 4척을 비롯하여 장보고 구축함, 4천톤급 문무대왕함, 왕건함,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14,000톤급 대형 상륙함, 한국형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해군사령부 예하 1,2,3함대(동, 서, 남해)로 편성되어 해군의 전략적 원해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2개의 해상저력여단과 130여 척의 공기부양정, 90여 척의 고속상륙정, 260여 척의 병력수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동시에 4,000~5,000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40여 척의 유도탄정에는 사정거리 46Km의 대함미사일 2~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70여 척의 잠수함은 한국의 대형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해안방어 및 연안작전 지원을 위해 동·서해안에 사정거리

95Km의 실크웜(Silkworm) 지대함유도탄을 배치하여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 양양 근해까지 대함공격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로미오급 · 상어급 잠수함을 20여척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 해역에서 항만, 해상교통로 교란/봉쇄, 수상함 공격, 기뢰부설 및 특수전부대의 침투 지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해군에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VI. 경찰의 대응방안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군사력 실태, 남북한 군사 전력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군사정책의 기조로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내세우고 대남 우위의 공세적 군사력 건설에 총력 투쟁을 경주하여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북한은 기습적인 공격을 통한 남한전지역의 동시전장화와 수도권의 조기석권, 전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미군지원부대의 사전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군사전략을 구상하고 총력전·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기습·속전속결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추구하여 왔다.

둘째,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과 군사적 위협을 파악하여 그 위협 수위를 분석 검토하였다.

① 2009년 북한은 ‘전면태세 진입’을 천명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 수뇌부의 인사를 단행하여 군 지휘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고 서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20여 차례나 침범하였고 11월 10일에는 한국의 해군 함정에 대해 조준 사격을 하는 등 대청해전을 자행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켜 왔다.

② 최전방지역과 서해해상지역 부대에 탄약과 식량, 유류를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장사정/방사포 300여 문을 진지를 이동하지 않고도 서울공

격이 가능하도록 실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공군전투기의 서울 공격을 6분 이내로, 미사일은 3분 이내로 타격할 수 있는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등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갖추었다.

③ 기계화보병을 비롯한 전차, 포병군단을 사단, 여단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이들 부대들을 최전방 지역으로 추진 배치하였으며 부대의 기동력과 화력을 한층 증강하였다.

④ 전방지역 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새롭게 창설하고, 사단 경보병대대를 연대로 증편하였으며 지상과 공중, 해상으로 특수전부대 2만 여명이 동시에 침투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화학무기,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더욱 고조시켜 왔다.

셋째,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무력을 증강시키고 최신행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시켜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① 군사지휘체계를 국방위원장→총참모장→작전국장→군단장으로 이어지는 군사 명령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차, 포병, 기계화, 특수전, 공군 전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② 북한군의 조직체계와 부대의 편성, 배치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군사적 현황을 분석 평가하였다.

③ 현재 북한은 총인구 비율 5.1%에 해당하는 119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전력 770만여 명을 포함하여 889만여 명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핵무기 10여 기를 비롯하여 1,300여 기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으며, 연간 5,000톤 규모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④ 특히 500여 개소의 요새화된 진지와 중대단위 이상 부대 10,500여 개소를 갱도화 하였으며, 13,000여 개소의 포병진지, 13,000여 개소의 대피소 등 총 36,000여 개소의 갱도화 된 진지와 대피소를 전후방 모든 지역에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남북한의 군사 전력을 지상군 · 공군 · 해군으로 나누어 비교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① 지상군 전력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무기를 제외하고도 총병력과 장비 및 부대규모에서 약 1.8배 정도의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기계화보병, 포병, 전차, 특수전부대의 전력은 한국의 전력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공군전력은 병력 및 전투기의 수적측면에서는 북한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의 전투수행능력, 조기경보체계, 비행기지 등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더구나 한국은 북한보다 최신형 전투기를 60여 기 더 보유하고 있으며 제공권과 레이더, 조기경보체계, 항공관제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전투기들은 대부분 지하격납고에 깊숙이 보관 되어 있고 수도 서울을 6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는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어 자칫 방심하면 한국 비행기지의 전투기들이 출동하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항상 만단의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③ 해군전력은 북한이 전투함정의 수적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해군

총병력과 전투함정의 성능 및 총 전투함정 배수량 등에서 한국이 당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은 대형 상륙함, 구축함, 대형전투함정으로 함대, 전대를 편성하고 연안방어 및 원해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의 해군은 소형위주의 전투함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서해안이 분리된 지리적 취약성 등의 문제로 해군 전투력의 전략적 집중화를 달성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해작전 수행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130여 척의 공기부양정과 70여 척의 잠수함, 90여 척의 고속상륙정 등 260여 척의 병력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약 5천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는 해상침투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증강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전략을 수립⁶⁶⁾ 하고 국가안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책을 수립하고 간첩 및 안보위해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모든 보안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간첩 및 좌익세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① 간첩은 침투간첩, 자생적간첩, 포섭간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모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직업적 혁명가이며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타도하고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척후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6)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응한 독자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방 후 현재까지 북한은 대대적으로 간첩을 양성하여 한국으로 침투 시켰다.⁶⁷⁾

② 과거에는 중앙당, 인민무력부 정찰국, 인민보안성에서 간첩을 양성하여 침투하였으나, 현재는 중앙당 통일전선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침투공작은 육로를 통한 침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 현재의 남방한계선 철책이 구축되면서 육로를 통한 북한의 침투공작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상침투는 비상루트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공작은 해상 및 우회침투를 주로 활용하여 왔다.

해상침투는 동해보다는 서해와 남해선상을 주로 활용하였다. 남포항을 출발한 북한의 공작선은 공해상을 경유하여 침투시간이 약 36시간~72시간으로 알려졌다.

공중침투의 경우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우회침투는 현 시기 북한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공공연히 침투하는 방법으로 그만큼 북한의 대남침투역량이 대내외적으로 강화되고 다양화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③ 좌익세력 및 간첩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간첩망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예측이 부족하다.

현재 국내의 좌익세력들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직업적 혁명가 등

67) 북한은 이들에게 특수교육(단기교육 3~6개월, 장기교육 6개월~5년) 후 필요 요원들을 지상과 해상, 공중, 우회침투를 실시하였다.

68) 현재는 북한에서 양성된 간첩 및 특수부대원들을 휴전선에 매복, 정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세력이 1만 2천여 명,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동조세력이 32만여 명을 차지⁶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형근 전안기부 1차장은 남한 내 친부세력이 4만 2천명⁷⁰⁾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지난 10여 년간 좌파성향의 정권 하에서 보안당국의 간첩 검거는 겨우 10여건에 불과하다. 과연 한국사회에 북한이 간첩을 침투시키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간첩을 검거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보안당국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북한의 간첩망이 대략 얼마이며 총 몇 개 망에서 몇 명의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지 조차도 정확하게 파악 또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실태파악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인 간첩들을 색출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간첩의 주 임무는 평상시에는 대한민국의 중요정보를 획득하여 보고하고 북한의 사상을 전파하여 사회혼란 및 동조세력의 규합에 있으며, 유사시에는 특수전부대의 제2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동독의 경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북한이 한국사회에 필요로 하는 간첩망은 약 300여 개 정도로 추정된다.

그것은 300여 개의 행정단위(시, 군, 구)에 최소한 1개 정도의 간첩망이 구축되어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300여 개로 간첩망(1개 망에 3~4명)을 예상해 본다면 한국이 침투된 북한의 고정간첩은 약 1,00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69) 배진영, “한국의 좌파세력 집중연구”, 『월간조선』 2002년 8월호(서울 : 조선일보사, 2002.8), 140~154면.

70) 『월간조선』, 1995년 6월호 : 임두빈,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 (서울 : 성지문화사, 1995), 289면 재인용.

그러나 현재 우리의 보안당국은 이들을 색출하는데 거의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고정간첩들이 1970년대 초반 이전에 침투된 간첩이라고 예상할 때 이들 세력들은 2대, 3대로 이어지는 간첩활동을 대를 이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침투 공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형성되어 왔다.

제1단계는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시기에 침투된 항일투사그룹이다.⁷¹⁾ 수십 명이 침투된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대부분은 사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사회에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2세들에 의한 간첩활동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단계는 남노당계 및 인텔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시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침투된 세력이다.

한국전쟁 이전시기에는 남노당계가 주류를 차지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제2전선을 형성하였던 부대들에서 정치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부는 유격대로 일부는 지하조직으로 깊숙하게 침투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에 연고지를 둔 인텔리 중심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대남침투를 전개하여 왔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전쟁고아 및 핵심계층의 자녀들을 선발하여 혁명적 유자녀교육을 통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여 대남침투공작을 전개하여 왔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정간첩의 대부분은 1970년대 중반이전에 침투한 간첩들로서 이들은 한국에서 인적, 물적 토대를 구축한 세력

71) 북한은 약 300여 명이 김일성 측근인사들이 북한으로 입국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생존자 및 사망자를 포함하여도 23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대남공작원들을 한국사회에 모래알처럼 깔아놓았다고 장담하여 왔으며 지금은 점조직의 간첩망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에는 북한에서 한국지폐를 공작금으로 지급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오히려 현지에서 조달하고 북한으로 보내져 다시 공작금으로 지급되는 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보안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 10여 년간 약화된 보안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① 현재 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있는 보안수사대 및 경찰서 보안부서(보안계)를 원래의 조직(보안과 등)으로 부활시키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의 보안인력으로는 방대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보안경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 실정에 적합한 보안장비들을 새롭게 구입하고 보안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보안경찰이 사비로 일부 활동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안수당 및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

③ 보안경찰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국적인 보안경찰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안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④ 지역단위의 보안협력기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지역단위의 보안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보안협력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비롯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사항들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북한의 대남침투공작이 예상되는 루트와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역 공작을 실시하는 예방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① 검거 및 자수간첩들과 이들을 색출하는데 전과를 올린 보안경찰 유공자들의 공작경험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② 북한의 침투공작이 예상되는 지점을 육로, 해상, 해외로 구분하여 각각 20여 개의 침투 예상지점(비상루트 10여 개소와 예비루트 10여 개소를 선정)을 선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망식 작전을 전개한다면 북한의 침투공작을 사전에 봉쇄시킬 수 있는 커다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북한의 침투공작의 현황과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 공작을 실시하여 북한의 침투공작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넷째는 국민의 안보의식과 대공경각심을 함양시켜 정부와 보안경찰, 국민이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간첩 및 좌익세력들을 발본색원해 나가야 한다.

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산주의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국민의 안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최근 10여 년간 좌파성향의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의 대공 경각심은 해이할 대로 해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대공경각심을 함양시키면서 간첩 및 불순분자들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③ 보안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와 보안경찰,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될 때 우리 주위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 및 좌익세력들의 책동을 발본색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인덕, 이념교육 지도전서(하), 서울 : 주극동문화, 1987.
- 김권철, 한반도내 군사력, 서울 : 도서출판 천산산맥, 1989.
- 김수남,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한반도 전략평가서,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12.
- 대한민국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09.
- , 국방백서 1996~1997, 서울 : 대한민국 국방부, 2006.
- 북한연구소, 북한 통권 제436호, 서울 : 북한연구소, 2008.
- ,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 배진영, “한국의 좌파세력 집중연구”, 월간조선 2002년 8월호, 서울 : 조선일보사, 2002. 8.
- 송경호, “김정일시대 군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2008 책임연구보고서, 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8.
-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2006 책임연구과제, 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6.
- , “북한 특수부대의 조직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통권 제70집, 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2.
- ,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통권 43집, 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1996.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서울 : 예진출판, 1990.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 도서출판 황금알, 2004.
- 이혁섭, 한반도 평화방위론, 서울 : 도서출판 붕명, 2006.
- 임두빈,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 서울 : 성지문화사, 1995.
- 전현준, 최근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2004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통일부, 2006 북한기관 단체별 인명집, 서울 : 통일부, 2006.
통일원, 북한개요 '91, 서울 : 통일원, 1991.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2. 북한문헌

김정일,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김정일선집 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최순옥,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방식”, 철학연구 2001년 3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3. 외국문헌

David Albright and Paul Brannan, "The North Korean Plutonium Stock, February 2007,"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 Report on North Korea (February 20, 2007)
Amos Perlmutter and William M. Leogreande, "The Party in Uniform :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1.76, (1982).

4. 기타자료

- 로동신문, 2009. 9. 9.
조선일보, 2009. 11. 11.
조선중앙방송, 2009. 7. 27.
조선중앙통신, 2009. 1. 30.
-----, 2009. 4. 18.
-----, 2009. 5. 27.
중앙일보, 1999. 5. 13.

책임연구보고서 2009-30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